

산업혁명과 산업재해 보통법에서 사업주 무과실책임까지



원종욱
연세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연재 순서

- ① 인류 최초의 산재와 공동체 사회의 해결법 (2월호)
- ② 최초의 보상제도 - 함무라비 법전에 나타난 보상 (3월호)
- ③ **산업혁명과 산업재해 (4월호)**
- ④ 산재보험의 도입 (5월호)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중세 유럽의 주요 산업은 농업이었고 노동계급은 농노였다. 농노는 토지소유자인 봉건 영주에게 예속된 존재로서 각종 부역 및 공납의 의무를 지녔다. 하지만 잉여 농산물로 시장이 생기고, 도시가 형성되면서 자본을 축적한 상인과 농민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이들은 도시에 모여 세를 형성한 후 자신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합(길드, guild)을 결성했다. 상인 조합은 11세기경에, 수공업 조합은 12세기경에 나타났다.¹⁾ 조합을 토대로 한 도시와 상공업의 발달은 화폐경제를 확대하였으며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의 단초가 된다.

산업혁명의 태동과 그 시작

농노는 일찍이 명예혁명을 거친 영국에서 가장 먼저 사라졌다. 농노와 소작농을 거느리고 있던 봉건 영주는 땅을 빌려주고 지대를 받는 장원 영주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되고, 영주와 자영 농가는 더 많은 경작지를 확보하기 위해 황무지 개간에 팔을 걷어붙이게 된다. 이들은 이 영토가 자신의 소유임을 알리기 위해 경작지에 담을 쌓는 인클로저(enclosure) 운동을 펼쳤다.²⁾ 인클로저 운동으로 자본을 축적한 소지주 ‘젠트리(gentry)’와 자영농 ‘요맨(yoeman)’은 ‘매뉴팩처(manufacture)’라 불리는 작은 공장을 만들어 모직물을 생산했다.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가 시작된 것³⁾으로

1) 남종국, 5장. 중세 서유럽 세계의 발전, 박운덕 외. 서양사 강좌 중[전자책], 2016. 아카넷
2) 김종현, 영국 산업혁명의 재조명, 75-83.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3) 김윤태, 교양인을 위한 세계사[전자책], 1. 공장에서 상품을 만든다: 산업혁명과 현대 세계의 탄생, 2011. 도서출판 책과함께

젠티리와 요맨은 임금 노동자를 고용해 생산물을 완성했다.

모직물 공업이 발전하면서 영주들은 양을 키워 양모를 파는 데 몰두했다. 더 많은 농민이 경작지에서 쫓겨나 도시 공장으로 몰려들게 되었다. 모직물 공업에서 시작한 영국의 섬유산업은 식민지 건설과 함께 무역의 발달로 인도에서 들여온 실크 목화를 이용한 면공업으로 발전하였다. 영국의 면공업은 자동 방직기와 방적기 발명에 힘을 얻었다.⁴⁾ 특히 수력을 이용한 방적기는 대규모 공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산업혁명의 시작은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하면서부터다.⁵⁾

산업혁명으로 급증한 산업재해

기계화된 공장은 아동과 여성의 힘으로도 생산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또한 분업화는 전통적인 장인의 업무를 미숙련 노동자에게 이전시켰다. 결과적으로 생산성은 크게 향상되었지만, 수요를 초과한 노동력 탓에 노동 조건은 열악해졌다. 아동 및 연소자, 미숙련 노동자의 산업재해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⁶⁾ 특히 안전 규제와 감독이 없었고, 과도한 노동시간과 부족한 휴식 등이 더해지면서 산업재해가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 일어났다. 영국에서 공장개혁의 최초 입법은 1802년이었으나 실패하였다. 이 무렵부터 10시간 노동운동이 전개되었고, 1833년 공장법 즉, '대영제국 공장 아동 및 연소자의 노동 규제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 18세 미만의 12시간 노동 또는 주당 69시간 노동, 9세 미만의 아동 고용 금지, 11세(30개월 후 13세로 확대) 미만 아동의 8시간 노동을 규정하였다. 1847년 공장법에서는 18세 미만과 성인 여성의 노동시간을 1일 10시간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공장법에서는 아동의 학교 출석, 작업환경개선, 법시행을 감독할 공장감독관의 임명과 권한 등을 규정하였다.⁷⁾

4) 송성수, 방직기로 산업혁명을 일구다, 리처드 아크라이트, 사이언스 올 2012. <https://www.scienceall.com/방직기로-산업혁명을-일구다-리처드-아크라이트>. 1733년에 존 케이는 플라잉셔틀(flying shuttle)이라 불리는 자동 방직기를 발명하였고, 1765년에는 하그리브스가 제니 방직기, 1769년에 아크라이트가 수력 방직기를 발명하여 강을 끼고 대규모 공장을 설립하였다.

5) 제임스 와트(James Watt)는 1769년에 증기기관에 대한 특허를 받았고, 1781년에는 증기기관이 회전운동에 이용될 수 있어 본격적으로 공업에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6) 이영석, 산업혁명과 노동정책: 19세기 영국의 공장법 연구, 74-87. 도서출판 한울, 1994 '1883년 당시 맨체스터 면공장 43곳에서 일하는 직공 중 9세 이하 아동이 4.58%였으며, 15세 이하는 32.36%였다. 당시 노동시간은 평균 12시간이었으며, 최장 노동시간은 평균 13시간 42분이었다'

7) 송병건, 산업재해의 탄생, 120-176쪽, 도서출판 해냄, 2015

영국 외에 독일 등에서도 공장법을 제정하여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펼쳤다. 그러나 이 시기의 산업재해는 개인의 책임으로 여겨졌고, 재해 노동자가 고용주로부터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사업주 과실에 대한 보상 : 보통법과 산재보상

보통법은 봉건제 붕괴 후 중앙집권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달했다. 중세에 각 지역을 다스리던 봉건 영주의 규칙이나 관습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고, 새로 생겨난 도시의 자치 규약들이 서로 상이했기 때문이다. 이 중 부당한 관습은 없애고 타당한 관습과 규칙은 채택하여 모든 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common law)이 보통법이다.⁸⁾

초창기의 보통법에는 남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 일하는 과정에서 죽거나 다쳤을 때의 책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이는 사회적인 정책에 근거했다기보다는 인과관계에 대한 원시적인 개념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일하다가 다친 종업원에 대한 주인의 책임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이 15세기 보통법까지 있었지만, 이 시기에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⁹⁾

보통법에서 산재에 대한 보상은 단순한 과실에 근거했고, 재해자는 이것이 사업주의 과실임은 물론이고, 그 손상의 원인과 결과를 밝혀야 했다.

1700년경에는 과실에 대한 책임이 대리인과 상급자의 책임까지 확대되었다.¹⁰⁾ 보통법에는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언급되어 있지만, 실제 노동자가 사업주를 고발한 것이 보고된 바는 1837년까지 없었다. 그리고 이 후에도 법적으로 사업주를 고소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재해 노동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노동자가 사업주의 불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당시 사고는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것이어서 사업주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운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자가 사업주의 불법행위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재판제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었다. 소송을 하는 경우는

8) 박용대. 영미법을 'common law'라 부르는 이유. Legal Times. 2009.06.09

9) Larson LK, Robinson TA, Lason A. Workers' Compensation Law. cases, materials, and text. 6th ed. 15-16. 2018. Carolina Academic Press.

10) DeCarlo DT, Thompson R. Workers compensation. The first one hundred years. 3rd ed. 3. 2015. The American Society of Workers Comp Professionals

막대한 비용이 문제가 되었고, 소송을 하면 그나마 사업주가 제공하던 약간의 치료비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사업주의 막강한 힘이었다. 사업주는 그 지역의 유지로, 그에 대항할 때는 지역 사회에서 고립되는 것을 감수해야만 했다.¹¹⁾

마지막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고 하더라도 승소하기 어려웠다. 산재 소송에 있어 보통법의 결정적인 문제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업주의 부적절한 방어 논리가 법정에서 인정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신성하지 못한 방어의 삼위일체(Unholy trinity of defense)’라 한다.¹²⁾¹³⁾

이 세 가지 원칙이 현대에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당시 법정에서는 모두 인정되었다. 1907년 독일의 산재 원인에 대한 통계를 보면 이 세 가지 원칙이 허용될 때 산재 노동자들이 승소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주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16%에 불과했다.

사업주 책임의 확장 : 고용주 책임법

산재 발생률과 사망률이 증가하고, 정치적으로 노동자들의 입지가 강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독일은 1838년에 철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주 책임법(Employer’s Liability Act)’을 입법하였다. 이 법은 불가항력적이거나 노동자의 전적인 과실을 제외한 모든 사고에 대해 고용주가 책임지도록 하여, 이전의 보통법에서 사용한 사업주들의 방어 논리를 무력화하였다. 1871년에는 이 법의 적용 범위를 공장, 광산 그리고 채석장으로 확대하였고, 1855년에는 미국 조지아주, 1880년에 영국에서도 제정되었다.

고용주 책임법의 도입으로 산재가 발생했을 때 노동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소송 비용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소송 자체를 못해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고용주 책임법은 이후 도입되는 ‘산재보험법’의 사업주 무과실책임의 근간이 되었다. 🐼

신성하지 못한 방어의 삼위일체

기여 과실

(Contributory Negligence)

노동자는 자기 자신의 안전에 주의할 의무가 있다. 노동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여 다친다면, 그 노동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사고 발생에 있어 노동자가 1%를, 사업주가 99%를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노동자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공동자 원칙

(Fellow Servant Rule)

동료 노동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책임지지 않는다. 산재 노동자가 보상을 받으려면 부주의한 노동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

위험 인수

(Assumption of Risk)

노동자는 취업할 때 이미 근무 중 발생하는 통상적 위험과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을 자발적으로 수용했다. 까닭에 사업주에게는 책임이 없다.

11) Lewis R. Employers’ Liability and Workers’ Compensation: England and Wales. 137-140. in Oliphant K, Wagner G eds. Employers’ Liability and Workers’ Compensation. Tort and Insurance Law vol 31. 2012

12) Hood JB, Hardy Jr BA, Simpson LA. Worker’ compensation and employee protection laws in a nutshell. 6th ed. 3-7. 2017. West Academic Publishing

13) DeCarlo DT, Thompson R. Workers compensation. The first one hundred years. 3rd ed. 4-5. 2015. The American Society of Workers Compensation Professionals